

조에이지 절 정원

조에이지 절에는 셋슈테이라는 이름의 회유식 정원(원내를 산책하며 감상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돌의 배치를 활용하여 섬과 산, 폭포 등을 묘사하는 가래산스이 양식이 유명한 셋슈테이는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수목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선종의 승려, 셋슈(1420~1506)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슈의 수목화 작품을 보면 힘찬 선과 다양한 음영을 사용하여 풍경에 깊이감을 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셋슈테이에서는 돌의 모양과 배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작품과 동일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마음 심(心)’ 자 꼴 모양의 연못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행운과 장수를 의미하는 길한 동물인 거북이와 학을 본떠 돌을 배치한 섬이 있으며, 연못가와 연못을 둘러싸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잔디밭에도 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슈테이의 중앙부에는 일반적인 회유식 정원과는 달리 나무를 볼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지 않아 돌이 배치된 모양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원은 한층 깊이감을 더하며 더 넓은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드넓은 부지에는 숲으로 뒤덮인 산허리와 3개의 연못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산청개구리의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재래종인 산청개구리는 수면에 드리운 나무나 식물에 산란합니다. 4월부터 7월에는 시메이 연못 주변의 나뭇가지에 거품 모양으로 붙어 있는 산청개구리의 알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원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는 30분이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으며, 산책로에서는 시메이 연못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메이 연못 근처에서 산허리까지 올라가는 옆길은 세상의 모든 방면에서 악으로부터 수호하는 사천왕 중 한 명인 비사문천을 모시는 하이텐(참배하기 위한 건물)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정원을 구경하려면 소액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토, 일, 공휴일에는 본당 옆 다실에서 말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해질녘이 되면 정원의 일부 구역에 설치된 야간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때 눈부신 조명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